

# 환경보전과 도시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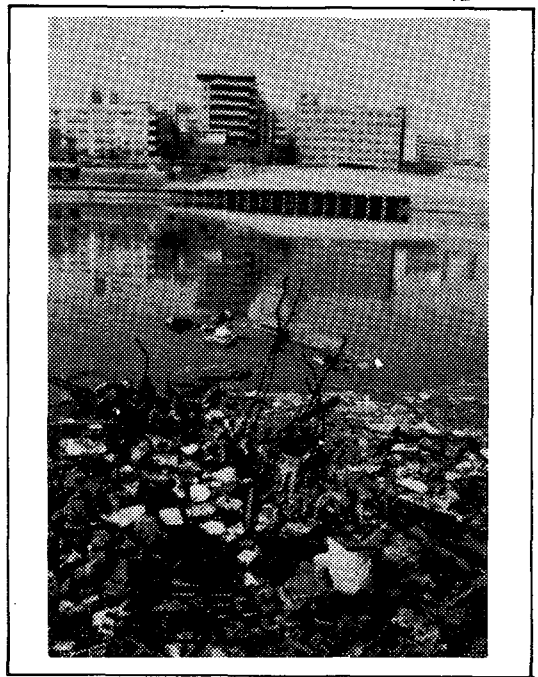
明知大환경설계연구소장  
工博 朴贊茂

환경이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로써 앞에 붙는 용어에 따라 다양하게 의미가 전달된다. 가령 인간이란 말이 앞에 오면 인간환경(Human Environment), 자연이란 말과 같이 사용하면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 도시는 도시환경(Urban Environment) 등과 같이 많은 뜻을 포함하고 따라서 그 환경을 다루는 사람들도 건축가(Architect) 계획가(Planner), 엔지니어(Engineer) 등 다양각색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그의 職能에 따라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新都市를 건설한다고 하자.

먼저 이 신도시(New Town)가 들어설 立地(Location)에서 부터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가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경제, 사회, 기술등 관련 분야가 망라되어 각 분야별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계획 과정(Planning Process)으로 들어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전에 행하여져야 하는 환경에 대한 평가이다. 통상적인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그 많은 환경중에서 자연환경(생태적인 측면)을 중시여기는 결과로 보이기는 하나 한번

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계획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본 구상안이 확정되면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급처리 시설계획, 건축 및 조경계획, 사업계



획동의 과정을 거쳐 실시설계의 단계로 넘어 간

“ ”  
 환경이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로써 용어에 따라 다양하게 의미가  
 전달된다  
 “ ”

다. 여기서 부터 “보존”과 “설계” 또는 “계획”의 相衡이 나타난다. 설계나 통상 계획은 개발과 창작이라는 뜻을 암시한다고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 개발행위는 곧 환경을 훼손하고 망치게 하며 그것을 만드는 계획이나 설계가는 환경을 그르치는 사람으로 매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나 설계는 맹목적인 보존보다는 값어치가 있는 작업으로서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더우기 그시대의 문화를 담은 그릇으로서 도시를 보는 시각은 더욱 이작업의 가치를 높여준다.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인구는 늘어가고 도시화는 가속되어 과거

에 그랬던것 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촌락이 형성되는 과정과 같이 새 도시도 형성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도시와 계획된 도시의 양자가 다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어느 누구도 여기 대하여는 명쾌한 답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보존 보다는 있는 것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자연발생적인 것 보다는 모든 것을 즉, 모든 필요 인자를 고려한 계획된 것이 더 나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다.

실제로도 환경을 계획함에 있어 많고 좋은 제도들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환경영향평가 이외



“ ”  
 新都市가  
 건설되려면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

자연지형물을 이용하여 건설계획을 세운다면  
시각적 쾌적감을 살릴 수 있고 자연환경도  
살릴 수가 있다

에도 교통영향평가나 인구영향평가 같은 것들이 있으며 또한 사람이 사는 도시를 보다 나은 것으로 진단·개수·규제하며 만질 수 있는 도시설계도 이 범주에 넣어서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것이 보존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결정단계라면 후자의 것은 개발을 위한 계획단계에 속한다. 도시설계(Urban Design)는 도시의 설계(Design of Cities)와는 엄격히 구분이 되는 것으로 작게는 筆地별 용도규제에서 부터 크게는 지구의 전반적인 환경규제 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제도의 성공 및 실패는 운용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거리의 간판이 시각공해를 일으키고 도로에서 많은 차량이 운행함으로써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감각적인 것에는 방관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좋은 도시환경과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설계 및 시행제도의 운용에는 왜 신경을 안쓰는 것인지 또 계획가나 건축가,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는데 있어 改惡을 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여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획가의 자세는 자연환경과 계획된 환경의 조화(Integrated Environment)에 먼저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가령 건설주에게서 설정된 조건 때문에 고층아파트를 산 기슭에 건립을 하여야 한다고 할때 계획가는 우선 산이라는 자연지형지물(Natural features)과 고층

아파트라는 인공지형지물(Man-made feature)의 어울림을 구상하여 산의 능선이나 푸르름과 같은 좋은 경관요소를 해치지않고 어떻게 배치하여 능선을 살리고 시각적인 쾌적감을 줄 것인가를 검토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한강변의 고층아파트군들과 같이 도시의 水景요소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되풀이 될 뿐이다. 자연환경을 오염이나 훼손에서 부터 구출해 내는 일과 더불어 경관을 창출해 내는 일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서 다시 보존과 계획의 문제가 제기된다. 계획을 위하여는 우선 설계나 계획을 하는 전문가들의 마음 속에 상황설정(Context)과 제약조건(Constraints)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아서 엮어내는 가를 명심하여야 하며 도시설계와 같은 좋은 제도의 운용은 행정가들 즉 정책결정자(Decision maker)들에 달려 있으며 환경의 보존은 모든 사람의 인식과 행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할때 진정한 의미의 환경-그것이 자연환경과 조화하려는 인공환경-보전과 발전적 측면에서 되살아 날 것이다.

즉 새로이 창출된 환경이 기존환경과 어울어져 보다 보전적인 환경에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환경의식 드높일 때**

**나라힘도 강해진다**